

JaeWon Kim 00:00:06

혹시 버전... 아리랑 큐랑 기 100,000,002... 아시나요?

P17 00:00:13

괜찮아요.

JaeWon Kim 00:00:14

아래에서는 그 스크롤 가능한 피드가 있었고 q 에는 데일리 커스션이 있었고 이모지 리액션이랑 비밀 댓글 그 다음에 질문 보내기 기능... 그 다음에 친한 친 90 개가 디폴트 였고 그 이후 게시물에만 친한 친구 적용 이런게 있었고 어 피드가 카톡처럼 생겼었죠. 그리고 체크인 소셜 배터리랑 노래 뭐 이런게 있었고요. 혹시 알부터 쓰셨나요?

P17 00:00:46

더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발을 사용했던 걸.

JaeWon Kim 00:00:51

아 네. 그러면은 q 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혹시 큐어 사용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감정이거나 피쳐나 이런 것들 떠오르는 거 있으면 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P17 00:01:12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기 100,000,002 막 혼자 나진 않은 것 같긴 한데요.

JaeWon Kim 00:01:18

네.

P17 00:01:18

아빠는... 어떤 질문에 기반해서 이제 영 평소에 굳이 대화할 12 없었던 주제들. 그런 그런 약품 가볍고 재미있는 주제들을 기반으로 지난 친구들을 하고 소통을 되게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JaeWon Kim 00:01:39

시청자 네.

P17 00:01:40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내가 이제 게시물 같은 걸 공유를 하고 또 이제 그걸 갖다가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프라이빗한 입을 받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aeWon Kim 00:01:55

어떤 점에서 좀 파비하다고 느끼셨어요?

P17 00:02:00

일단은... 이 시스템 자체가 이게. 물론 이거는 버전 원래도 해당을 좀 한다고 생각을 나긴 했지 10,002 제 친한 친구 기능이 설정이 되는 점에서 조금... 편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있었고요.

JaeWon Kim 00:02:17

시청자 네.

P17 00:02:18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좋아요 를 몇 개나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예전큐어에서는... 숫자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딱 누구... 누가 반응을 했는지 정도로만 표시가 되니까 그냥 조금 더 부담없고 편안한 느낌을 받는 대로 기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JaeWon Kim 00:02:38

혹시 친한 친구로는 어떤 사람들 설정을 하셨었어요?

P17 00:02:44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친구로는 실제로 알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알고 있는 친구들을 조절점을 해놓고 이제 일반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의 친구라든지 이런식으로 그냥 앱상에서 이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JaeWon Kim 00:03:01

음. 그럼 혹시 친한 친구에게 10,000 개하는 걸로 주로 개시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전체별로... 다 하셨나요?

P17 00:03:12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친한 친구를 공개했던 것 같아요.

JaeWon Kim 00:03:16

으으으음. 혹시 그 전체 공개로 하시니까 자발적으로 전체 공개로 게시를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P17 00:03:26

제 기억상으로...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JaeWon Kim 00:03:30

음. 그럼 혹시 q 사용하시면서 이 기존에 있는 이 플랫폼이랑 좀 비슷한 거 같다 라고
떠오르셨던 게... 있으신가요? 없어도 되죠?

P17 00:03:46

아 네.굳이 꼽자면은... 약간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나 트위터 같은 그런... 플랫폼 중간
가운데린과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제가 트위터랑스레드를 사용하는 건 아니라서 약간 양...
뭔가 비싼 느낌을 받았다 정도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JaeWon Kim 00:04:10

음.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 플랫폼들이랑 비슷했고 어떤 점에서는 좀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P17 00:04:18

인스타그램하고 비교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은... 제가 젤로... 적극적
활발하게 사용하는 sns 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통점으로는 뭐 친한 친구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간단하게 이머지도 반응하고 저유반응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무게감이 있지 않은 반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있는 스토리는 먼저 누군가 올려야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지 10,002 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질문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
또 내가 답변한 질문을 남친 친구들이 또 답변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게... 일상적 공상의
용역으로 열려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하구요.

JaeWon Kim 00:05:13

아 네.

P17 00:05:14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나 스레드 같은 거는... 제가 실제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플랫폼에서의 상호작용이 어떤 형태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 짧은 코멘트를 남기고 또 이제 약간... 내가 지정하는 그룹의 사람들을 하고 10,002 런 걸 공유하고... 뭐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좀 유사하지 않았다고 했더라고요.

JaeWon Kim 00:05:39

그럼 혹시 인스타랑 비교를 하셨을 때... 이 부분은... 나랑 더 잘 맞는다. 이 부분은 좀 더 안 맞는다 라고 생각되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P17 00:05:55

일단 버전 q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90,000.

JaeWon Kim 00:05:59

네네네.

P17 00:05:59

아 그래요?일단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질문 같은 뭔가 상호작용에 이니시에이터가 되는 거를... 먼저 내가 누군가가 그걸 시작을 해야지만 내가 수동적으로 디테일할 수 있다는 점 22 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이제 인스타그램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앱 사용자가 소수일 때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점점 활성화가 돼서 주변에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그 한 명 한명의... 브로피를 나 클릭을 해서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하는지 확인해 보는게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12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셜네트워크의 쓴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내가 굳이 대면으로 만나지 않아도

사람들을 조금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구열해주는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런 소식을 확인하는데... 커피드가 이렇게 스크롤업을 한 피드가 떠서 이제 그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친구들의 새로운 뭐 퍼스트나 아니면 패션리에 대한 대답을 확인하는 게 조금 더 기능 수행 면에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JaeWon Kim 00:07:24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상호작용을 하는 것 관련해서요. 인스타에서는 보통...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어떤 것들을 관찰하셨는지가 궁금해요.

P17 00:07:49

항공모함 작용 말씀하신거죠?

JaeWon Kim 00:07:51

전.

P17 00:07:53

근데 일단은... 저건 이건 약간 당연히 사람마다 좀 갈리는 부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냥 스토리가 하고 적용해 주셨어요. 이 저나 아니면 제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스토리는 반면에 일단 24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어떤 휘발성이라는 휘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잡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가볍게는 뭐 스토리 좋아요나 아니면 이미지 반응부터 뭐 답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올리는 사람이 뭔가?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보투표나 설문 같은 걸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의 첩보가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도 수준에서 내가 의도하는

말을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 받기가 되게 편하다는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 답장이나 아니면 그냥 이모지 받은 저요. 이런식으로... 가벼운 상호작용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누군가가 내가 올리든 다른 사람이 올리든 올리기로 마음 먹은 거에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거 이상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에는 제한한 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질문 같은 기능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버전, 교회.

JaeWon Kim 00:09:29

혹시 그러면은 q 에서... 사무작용이라고 하셨을 때 게시글을 올리게끔 하는 유독 같은 부분도 있었던 그 부분까지는... 그렇죠.

P17 00:09:45

호텔에서 보양을 줬다 라고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 10,002 제 뭐 그렇다기보단 병원 질문 보내고 그냥 밖을 다니고 이 문제 반응하고 그런 사소한 인덱션들이 쌓여서 뭔가 좀 더... 엔게이즈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지 않았나?

JaeWon Kim 00:10:05

음. 그러면은 이모지나 댓글은 사실 인스타그램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질문 보내기 기능이 좀 가장 유효한 기능이었다고... 보고 계신 게 맞나요? 아니면은 그건 아닌지.

P17 00:10:23

일종의 인생이죠.

JaeWon Kim 00:10:26

그러면... 그러면 질문 분위기 기능 질문을 보내시거나 받으신 적들이 있나요?

P17 00:10:35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굳이 뭐 내가 보내지 않더라도 추천되는 질문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답변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냥 뭐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게 있으면 친구들한테 종종 보내기도 하고 저도 친구들한테 받은 질문 답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JaeWon Kim 00:10:54

그러면은... 보통 어떤 경우에 질문을 보내시게 되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종류의 감정이 들거나 아 제가 이런 의도를 보냈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P17 00:11:12

사실 우리가 어쨌든 뭔가 이런 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약간 지루한거나 시간을 좀 데리고 싶다거나 혹은 뭔가 그냥 사람들하고 연결했다는 감성을 느끼고 싶다거나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집에서 그냥... 질문 같은 걸 뭐 보내든 버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냥... 그 친구와의 뭔가 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 정신적 유대감을 좀 얻고 싶었던 게 얻고 싶었던 목적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 받게 되면 그냥 뭐 뭐 애가 이 질문을 보고 내가 생각이 났나보네. 왜 생각났으니까 좀 재미도 있고 가볍게 넘길 수 있으면서도 어떻게 유쾌한 어떤 콘텐츠로 작용을 한 것 같아서 저한테.

JaeWon Kim 00:12:01

음. 그럼 혹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 답하기 싫은데 제가 보냈으니까 다 해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프레스도 느끼시나요?

P17 00:12:13

답하기 싫다 라기보다는 그냥 딱 생각난다. 없는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그냥... 심는다고 하죠. 무시했기 때문에 딱히 목회자를 이렇게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JaeWon Kim 00:12:27

남자 집사 응... 그러면은 혹시 그 아... 잠시만요? 혹시 비밀 댓글 기능 사용하셨나요?

P17 00:12:42

이 번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JaeWon Kim 00:12:45

애는 보통 어떤... 이 경우에... 쓰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쓰지 않았다면 어떤 점에서 필요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P17 00:12:58

사실 이제 이거 비밀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 앱... 그래서도 있었지 10,004 실... 기자... 요. 근래에 사용되는 매체들 중에서 자주 쓰이는 곳이 글로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국에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요즘 내 주변에 비를 쓰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냥... 뭔가 24 램한테... 내가 이 글을 너의 포스트가 됐든 뭔가를 너의 어쨌든 너의 콘텐츠를 내가 확인했어 읽었어... 라는 걸 알리고는 싶고. 근데 뭔가 공개적으로 코멘트를 살긴 좀 애매하고 뭔가 좀 사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냥 내가 읽었다라는 사실을 티를 내지 않은 상태로 그냥... 관심을 좀 표현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 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블로그에서 그렇게 쓰이지 10,002 앱에서도 충분히 비슷한 기능을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JaeWon Kim 00:13:58

아 네.그러면은 내가 이걸 읽었다 라는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성의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이모지 리액션이랑 비밀 댓글이랑 좀 어떤 식으로 비슷하거나 다른가요... 느끼시기에.

P17 00:14:17

뭐 유사성은 뭐 읽었다 확인된다고도 나보다 기차가 고민 딱게 없을 것 같고 차이점 같은 경우에 사실 이모지나 좋아요나 그런 건 그냥... 약간 소위 말하면 좀 인스턴트적인 게 좀 있잖아요. 그냥 한 두번 클릭하니깐.그러니까 사실 요즘 인스타그램과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하루에... 이제 두 팔로 많은 개성으로 접속할 때는... 그냥 버스 수십 개씩 뜨는데. 솔직히 그 중에서 좀 친한 사람들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이런 계정이 아닌 일반 지인... 에 포스트는 사실... 유심히 보지 않거든요.양 한 23 초 숙소부터 보 양 저도로 내려가고 이런식으로 넘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해주는게 아니시는 것보다 낫지만 24 람이 과연 내 콘텐츠에 얼마나 관심을 표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밀 댓글은 그래도 뭔가? 내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을 잡음으로써 나는 너의 코스트를 읽었다. 라는 걸 좀 더 재미있나게 표현할 수 있는 바쁜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JaeWon Kim 00:15:33

그러면... 그럼 그 약간... 버튼을 클릭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간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좋아요랑 이모지 중에... 안녕하세요.

P17 00:15:47

사실 인스타는 아시다시피 좋아요만 있고 이모지에 많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대일 비교는 적용될 것 같고, 앱 사용할 때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큰 차이는 아니겠지 10,002 모지각에도 조금 더 감정적으로 풍부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좀 더 약간... 미세하게나마 좀 더 친밀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JaeWon Kim 00:16:12

음. 혹시 그... 콘텐츠 내용이랑 내용이 반영된 이모지를 사용해 보신 적도 있나요? 주로 그냥... 표정.

P17 00:16:25

있습니다. 슬픈 슬픈 글이 올라오면서 포요를 누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같죠?

JaeWon Kim 00:16:31

아니면 해변가를 갔다? 그러면 뭐 해변가 이원지.

P17 00:16:36

하는... 아 네네 있습니다.

JaeWon Kim 00:16:40

음.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그 비밀 댓글이 줄 수 있는 내가 제대로 읽었다 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밀 댓글이 별도의 효용이 좀 더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P17 00:16:57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모지로 남기는 거랑 텍스트로 남아있는 건 아직은 좀 간극이 있다고.

JaeWon Kim 00:17:07

음. 그게 노력을 드리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내용의 풍부함... 이라고 해도.

P17 00:17:14

그렇다고.

JaeWon Kim 00:17:16

그러면... 그러면 알로 넘어가서 혹시 알 쓰시면서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감정... 인터넷선이 있을 수 있을까요?

P17 00:17:34

사실. 그때... 그건 그냥 개인적인 이유지만 그때 제 저와 제 친구들이 다들 시험기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큐어할 때만큼 활발한게 발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설문에서도 부탁드린 것처럼 좋았던 점은 피드가 나온다는 표식이 된다는 점인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큐어에 있었던 많은 기능들 24 라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이 앱을 사용해야만 한 이유가... 약간 좀 사라진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해서 사실 단점 좀 아셨던 것 같습니다.

JaeWon Kim 00:18:15

음. 그러면은 q 일 당시에 이 앱을 사용할 만한 이유가 뭐였는지 표현해 주신다면.

P17 00:18:28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질문을 질문에 응답하고 못 보내고... 더 작용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좋아요 숫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자유롭게 좀 더 포스트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안공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뭐 크지는 않지만 10,004 소하게 그냥 약간 소셜 에너지나 성향이나 음악 같은 거 절차해두는 기능으로 그냥 재미요소가 좋은 재미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JaeWon Kim 00:19:03

음. 각각의 인터랙션들을... 알로 갔을 때...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포스팅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방법이 줄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것들이랑 비슷한... 재져서 그런건지 좀 더 전반적인 느낌으로 공감할 것 같아요.

P17 00:19:40

그렇지. 약간 경로이존성이 좀 있다보니까 뭔가 포스팅 하거나 사용을 하게 될 때 어쨌든 기존에 좀 쓰던 플랫폼이 좀 더 선호하게 된 영향이... 진짜 다행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전 교회 질문분의 이기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kt 같은 이제 뭔가 좀 유인동기가 있는 진출기능의 역할을 하지 10,002 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요런 앱의 사용 빈도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어떤 다양한 상황이나 경험들을 버스팅 하게 되는 그런... 머스타드 피드백 같은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게 어전큐 때는 이제 질문 뭐 왔지?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뭐 답변해주면서 생각나긴 포스팅 같은 걸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반면에 뭐점퓨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 wit 에 접속을 해서 뭔가를 인터넷션을 해야 만나는 동기가 훨씬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 큐어할 42 에 막 포스팅을 한 그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베리어나 그런 거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느낀 건 아니었지만... 근본적으로... 앱을 사용하게 되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플랫폼과의 차별성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 굳이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리고 이미 많은 친구들 24 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새로운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만 하는 동기도 굉장히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JaeWon Kim 00:21:25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보통 소셜미디어를 쓸 때 좀 남들이 어떤 식으로 쓴다 라는 걸 약간 눈치를 보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 플랫폼에서의 문화는 이런 느낌인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큐에서 알로 바뀌면서 느끼신 변화 아니면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그 변화를... 안녕하세요... 알기 어려우셨다면 그런 궁금한 거 같아요.

P17 00:22:04

전체적으로 큐브에서 아래로 넘어가면서 큐에서는... 뭔가 좀... 클로즈 바운더리 안에 있는 친구들과의... 그냥 약간 아무 말 한다고 했잖아요. 약간 좀 트레이시도 크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제 양.

JaeWon Kim 00:22:23

감사합니다.

P17 00:22:25

Tmi 같은 건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벌써 얼로 넘어가면서는 양 좀 더... 딱해졌다.그러니까 편안한 덜 편안해졌다. 약간 조금 더 격식을 차리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저는 그래요.

JaeWon Kim 00:22:48

이건 되게 새로운데 어떤 점에서 좀 더 격식 있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격식 있는 게시글을 올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P17 00:22:59

이건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JaeWon Kim 00:23:01

이번에는.

P17 00:23:03

묘한 느낌이고 사실 엄청나게 격식이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뭔가 일단 첫 번째로 이드가... 모두의 피리가 나온다 라는 점에서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에트모스피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앱에서 뭔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dmi 같은 그런 분위기 좀 덮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좀 질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뭐 실험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런게 사라지면서 앱 자체 분위기가 조금 더... 어두워졌다 라기보다는... 덜톡톡 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공적인 이메일을 보낸 뭐 이런 역식이라기보다는 양 조금 더... 남자 집사 응... 약간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사회생활적인 느낌이 좀 들어갔네. 받았던 것 같아요. 네가 아니게 원래 내가 지금 이제 기 100,000,002 막 완벽하게 나는 건 아니긴 한데.

JaeWon Kim 00:24:17

네. 그럼 사회생활 하는 듯한 느낌이라는게 피드가 있으니까 내게 남들한테 바로 노출이 될 거다 라는 그런... 기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P17 00:24:37

그 비대 노출에 대한 생각이... 프라이머리한 요인은 아닌데 분명히 있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생각하는 타이머리 한 요인 질문이나 뭐 음악이나 뭐? 소재 스테이크 배터리 같은 기능? 그런 게 싹다 좀 형편이 되면서 앱 자체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약간 us 적인 측면 되서 느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비드에 대한 노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아이들을 노출할 사람이 그 친한 친구랑 일반 모든 친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까지 빠졌다면 아마 그게 훨씬 높은 영향을 줬을 텐데. 그래도 이제 어느정도 그 기능을 유지가 됨으로써 저튼 최소한의 배려 역할은 되었던 것 같고요.

JaeWon Kim 00:25:25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래에서는 뭘 포스팅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더 튀는 느낌이 덜하다 라고 했을 때... 남자 집사 응... 가벼운 걸 올릴 때... 가벼운 걸 올릴 수도 있잖아요. 뭔가 질문 답하듯이 농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남자 집사 응... 그게 생각이 안 나던지 아니면 남들이 안 해서지 아니면 뭐... 네. 제가... 어떤 어떤... 기재 인지 궁금한 거 같아요.

P17 00:26:11

남들이 안에서를 생각하기에는... 그 앱 상에서의 이제 친구의 표본 수가 충분되지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JaeWon Kim 00:26:19

시청자 네.

P17 00:26:20

예제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정도 그렇게 일단 맞는 말인 것 같아요.그 다음에 일단 그것도 기여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있었던 얘기를 한 번 드리긴 했는데... 일단 앱 자체에서... 체류하면서... 질문보내기 같은 뭔가 조금... 인티메이션 분위기의 인플렉션 자체가 사라지니까 나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런 거를... 허팝... 예시할 심적 동기가 사라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약간 제가 이걸 이식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기보다는 지진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되는 생각이긴 한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JaeWon Kim 00:27:19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거는 이제 아까전에 지문 번역이나 이런거 하면서 그 앱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니까... 사소한 거라도 포팅하게 됐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질문

보내기 같이 좀 가볍게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 둘 중에서 약간... 이쪽이 얘기해 주신 거에 가깝나요?

P17 00:27:48

그리고 이걸 둘 중에 하나를 딱 뽑으라고 한다면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어느정도 조금... 약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둘 중에 하나만 떼어놓고 보기는 어렵다고 느껴지기.

JaeWon Kim 00:28:09

아 그럼 둘 다 영향을.

P17 00:28:11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안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이 좀 더 강화되고 또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 다시 강화를 해볼까? 좀 이런... 루프 관계에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JaeWon Kim 00:28:24

음 네네네 음 그러면... 버전 아리랑 q 각각을 디자인한 의도 혹은 목적... 어떤 가치를 위해서 각각을 디자인했다고... 보셨나요?

P17 00:28:43

이거는 수고하게 사용자의 시선에서.

JaeWon Kim 00:28:46

시청자 네.

P17 00:28:47

바닥 그런 느낌은 일단... 버전큐 같은 경우엔 뭔가 이제 앱을 사용함을 통해서 좀 친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편안한 상호작용... 저는 세실리이트 하는게 중요한 목적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구요. 반면에 버전 말 같은 경우엔 여타이의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sns 가 그렇듯이 그냥... 다양한 많은 수의 사람들과의... 보다 더 표면적이고 얇고 넓은 상호작용에 조금 더 치중한 느낌이 있었어.

JaeWon Kim 00:29:26

그러면... 어떤... 점들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받게 되나요? 유저 입장에서.

P17 00:29:38

요거 이건 이제... 일단 버전큐 같은 경우엔... 물론 아마 제가 설문에도 답변을 드렸을 거고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요. 퍼스트 올릴 때 버전 휴회선 그 친한 친구가 디폴트 였잖아요. 이게 실제 사용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다 10,002 제 디폴트가 플러스 프렌드로 되어있는 점에서 약간 나 이 발전의 어떤 지향성은 좀 지나친 사람들만의 연결 29 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질문 그레이 자체가 어느정도 조금 기본적으로 친분이 있어야지 편안하게 성립이 되는 12 다. 보니까 그런 태생적인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JaeWon Kim 00:30:27

그럼 질문 보내기를. 친분이 없는 사람 질문 분위기에... 느낌이나? 의미가 어떤 거이길래 사용자 입장에서 그게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기에는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P17 00:30:46

그런... 빨리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뭔가 좀 그래도... 끊임없이 갑자기... 그걸 내게 되면 약간 좀 약간 이런 일을 때면서 강의를 주는데 꼭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말을 건다든지.

JaeWon Kim 00:31:05

괜찮아요.

P17 00:31:05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그래도 좀 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건 약간 좀 장난스럽게 자연스럽게 장난치는 느낌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JaeWon Kim 00:31:15

이거 비즈가스... 알고는 느낌이군요.음. 그러면은... 큐랑 아리랑에서 혹시 각각 본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게 되셨나요?

P17 00:31:41

그냥 퓨에서는 일명... 나의 좀 가볍고 평범한 일상에서의 모습보 오늘 뭐 맛있는 밥을 먹었다. 아니면 뭐 영 원 허팝쟁이 가다가 화면을 봤더니 이쁘더라 뭐니복지시험을 쳤는데 망한 것 같다. 막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버전널에서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렉시트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래도 좀... 우리가 일반적인 sns 인스타 같은 뭐 그런 거에 스토리로 올릴 법한 것들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아니면 오랜만에... 너무... 뭐가 있을까요? 오랜만에 좋은 책을 한 번 읽었다. 이런식으로 조금 더 포멀하고 두꺼운 사건들 익숙한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JaeWon Kim 00:32:40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어떤 다른 친구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올렸고 친구들에 대해서 알게 됐던 점들이 각각의 적절히 달랐나요?

P17 00:32:57

친구들의 경우에도 다... 제가 말씀드린 걸로 있었던 것 같아.

JaeWon Kim 00:33:04

남자 집사? 응... 그럼 혹시 그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 아 이거 괜히 올렸다 라고 후회가 됐던 적도 있으신가요? 두 버전에 걸쳐서.

P17 00:33:20

사용할 기간 동안은 저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뭐 만약에 오래 사용한다면 그런 12 충분히 생길 수 있는 12 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 얘기.

JaeWon Kim 00:33:30

음. 그럼 그 혹시 인스타에서 게시글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안된다. 이런식의 문화를 느끼는 사용자 참여자분들도 계시던데 정모님도 그런... 거를 좀 느끼시나요? 평소에.

P17 00:33:48

화는 아마... 인스타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제 세대에 사는 스튜디오들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

JaeWon Kim 00:33:59

안녕하세요.

P17 00:33:59

감사합니다.

JaeWon Kim 00:34:00

시청자 네.

P17 00:34:00

오늘날 인스타케 시무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봤자고 세계 육 개 구 개 보통은 아무것도 안 올려.

JaeWon Kim 00:34:08

감사합니다.

P17 00:34:10

저도 그 메인페이지에는 육 개 모여.

JaeWon Kim 00:34:13

아 그럼 그게 혹시 큐랑 알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느끼셨나요? 그런 문화가.

P17 00:34:23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가 친한 친구들한테만 포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 요거의 존재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스타 1°C 얼마전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지난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버스트의 기능이 생겼긴 하지 10,002 미 인스타에서는 이 포스트라는 게 조금 되게... 골드하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문제로 인식이 있다가 듣기 때문에... 아마 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 친구 기침이 보여 보이다가 안 보이면 아 24 램이 나를 뺐구나. 쓰는 친구에서 이렇게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JaeWon Kim 00:35:02

안녕하세요.

P17 00:35:03

그래서 효용성은 없다고 보고... 이 앱에서는 로버전 이거는 제 두번째 상관없이 전부가 지난 친구에게겐 포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맞대고 있어.

JaeWon Kim 00:35:19

안녕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그러면은... 괜찮아요.잠시만요.그... 큐브에서 에피드 있잖아요.그거에... 안녕하세요... 장점이 존재한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P17 00:35:53

그 피드의 장점 말씀하실까요?

JaeWon Kim 00:35:56

시청자 네.

P17 00:35:58

이거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JaeWon Kim 00:36:03

혹시 어떤 점인지 다시 한번 만들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P17 00:36:10

우리가 이제 요런 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쨌든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친구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들어가는 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12 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요런 걸 사용하는 목적은 어쨌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대면 상태에서도... 연결과 유대감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 주변 친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하루를 보냈고 이런 걸 아는 것도 이제 사용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있으면 좀 더 이제 한눈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걸 올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었고 반면에 이제 pd 가 안 드는 경우에는... 이제 친구 수가 특히나 많아지게 되면 너도... 뭐 이 친구가 되게 중요한 소식을 혹은 되게 흥미로운 뉴스를 올렸는데 내가 그 친구 프로필을 까먹고 안 했다는지 해서 놓친다는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약간 좀 멀쩡해지고 그런 점은 약간 내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리드가 사용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장점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JaeWon Kim 00:37:28

음 네. 그 제가 큐외소의 피드를 그 프로필 뜨는거 있잖아요. 그 친구 리스트인거 그거를 리스트뷰 피 피드라고 그냥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피자 있잖아요. 그냥 친구 목록 같은 게 장점은 혹시 있다고 생각... 느끼셨는지? 그게 예쁜 걸로... 없을 수도 있고.

P17 00:37:55

저는 스크롤러블키드가 더 장점이 많아요.

JaeWon Kim 00:37:59

느낌.

P17 00:37:59

때문에.

JaeWon Kim 00:38:00

시청자 네.

P17 00:38:03

굳이 뽑자면... 내 친구들 목록을 한 눈에 보면서 그냥 뭐 옆에 약간 눈막이나 그런 거 드잖아요.

JaeWon Kim 00:38:12

시청자 네.

P17 00:38:13

그런 걸 봤는데 볼 수 있다. 정도만.

JaeWon Kim 00:38:15

음. 네네네... 안녕하세요.그러면은... 중심이나... 음. 아까전은 그 옆자리 사람한테 말거는 그런거 비유가 되게 재밌었는데 어? 그 큐나 알을 앱을 연 순간부터 끝 때까지 음 어떤 식으로 뭘 하시고 어떤지 어떤 식의 사고 사후작용을 하시는지를 어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만.

P17 00:39:15

안녕하세요. 이런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JaeWon Kim 00:39:22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P17 00:39:25

효율 같은 경우에는 원하자면... 일단 뭐 아침에 일어나서.그리고... 그런 안에서의 있는 편지를 애들이 버린 질문 같은 편지를 보고 이메일과 이메일 같은 거 확인하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침에 이제 내가 또 해야 될 일. 이메일 좀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루틴을 하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고 그냥... 재미있는 연결성을 중심 그런 느낌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 양상호 작용하는 거는 그냥 이제 동아리 모임 같은 데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야 너는 뭐 어딴어? 이거 먹었는데 맛있다 자연스럽게 수다 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얘기할 게 있으면 그냥... 동아리 모임 할 때 앞에 나가서 얘기 좀 하고 행복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쉬고 그런 느낌이라면... 버전날 같은 경우엔... 비드를 켜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좀... 아침에요. 약간 몇 불을 옷도 좀 챙겨있고 화장도 좀 하고 뭔가 좀 마음의 준비를 좀 갖추고 나가는 그런 느낌인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는... 버스나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알이 조금 더 뭔가 격식 있는 느낌이다 라고 했던거를 굳이 비율로 나타내잖아요.똑같이 내가 굳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동아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부스스한 상태도 자연스럽게 나가서 얘기를 하는거라... 아침에 다 차고 옷까지 차려입고 화장하고 뭐 꾸미고 나가서 그 상태로 얘기하는 걸 없죠. 그 정도의... 인터넷 매너에 있어서...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해야 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JaeWon Kim 00:41:22

남자 집사 응... 근데 되게 신기한게 이미 아는 친구들이고 이미 아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딱 갑자기 약간 딱딱해진 그게... 기자.어디서 온건지 얘기해주신 질문 분위기나 아니면 거기

시간 많이 보내는거 그런게 있긴 하지만... 시간을 그 전에도 이미 많이 보냈던... 아니면 다른 플랫폼으로 인식이 돼서 그런가... 아 네.

P17 00:41:53

약간 무의식적으로 달아볼까... 수도 있겠네요.

JaeWon Kim 00:41:58

안녕하세요.

P17 00:41:59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배터 금성이.

JaeWon Kim 00:42:07

근데 괜찮아... 그림을... 평화 아래서... 뭐 특히 키워서 인스타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같은 기능이 있었는지 아니면 인스타에 적용했을 때... 애도... 그 피쳐들이... 지금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그게 예쁜 걸로.

P17 00:42:43

트라이비트 코멘트 기능은 스타 1°C 좀 도입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JaeWon Kim 00:42:51

안녕하세요.

P17 00:42:51

물론 실제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 또 막 부담스러워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특성상 완전히 유박스럽기 때문에. 근데 다만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느꼈고.그리고 뭐 질문 분위기 같은 기능도 인스타에 도입이 된다면 좋겠지만 아마
그러면은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몸을 기는 점... 기능적 변동은 없지만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JaeWon Kim 00:43:17

어떤 식으로나요?

P17 00:43:20

나의 메모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처음 도입될 때는 다른 플랫폼에도 있던
기능이었던 걸로 아는데 막상 실제로 메모가 도입이 되고 나서 도입이 처음 될 때는 다들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할 거다. 뭐 약간 일상적인 걸 공유하는 창고로 쓰겠지 했는데
실제로 도입이 되고 나니깐 어차피 이미 인스타에는 스토리 미주에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복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사람들 생각만큼 메모가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도입이 되고 나니깐 어차피 이미 인스타에는 스토리 미주에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복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사람들 생각만큼 메모가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도입이 되고 나니깐 어차피 이미 인스타에는 스토리 미주... 고 한.그럼... 어느 일상
행적의 시점에서 인스타를 다 켜서 들어가보면 메모를 올 게시한 상태인 친구들의 비율이
한... 오 프로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시청자 네.이것도 어떻게 본격으로 의존성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짜여진 플랫폼의 기능을 추가하는 거라...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에서
뭔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이게 기능이 독학 유통이라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실제로
사용되는... 목적성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JaeWon Kim 00:44:34

응 진짜...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큐랑 알을 합치거나 짬뽕 시켜서 만들 플랫폼을 직접 만드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싶으신지. 지금 있는 기능을 없애거나... 변경하는 방안으로도 좋고 새로운 기능을 제시해주셔도 좋아요.

P17 00:44:59

좋아요 이건 똑똑... 많이 말씀드려서 명백해진 것 같긴 한데 그냥 큐어가 좋은데 이제 저는 제가 만든다면 그냥 피드만 스크롤러블하게 바뀌어서 하는게 좋네요.

JaeWon Kim 00:45:13

피드 이번에 추가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너무 연구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그... 일단 셀로우칩 같이... 이게 아무래도 소셜미디어 만드는 거는... 저 참여자 중에 한분이 늙은 사람 20,000 든 작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알려고 노력해서 만든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식으로 저희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참여자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열어놓고... 같이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는 그런 거를 모집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이메일 받고 싶으신지 아니면 바쁘시면은... 안 하셔도 좋아요.

P17 00:46:31

백 퍼센트 참여할 수 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연락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JaeWon Kim 00:46:39

아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얼른 주무시험 감사합니다.

P17 00:46:49

거기에는 지금 저녁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JaeWon Kim 00:46:52

여기는 아침이에요. 여기 이제 십 시 델랑말랑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P17 00:47:05

적응하는.

JaeWon Kim 00:47:06

네 감사합니다.